

초불확실성 시대 일본의 게임체인저 전략

아베 독트린, 안보 넥서스, 가치 네트워크 *

오승희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국제질서가 급변하며 불안정한 가운데 일본의 안보 전략의 변화와 대응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최근 10여 년 간 나타난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 기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과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변화를 회피하고 경로의존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일본의 측면도 물론 존재하

오승희(吳承禧)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일본 게이오대학교와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방문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분야는 중일관계, 일본의 외교정책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전후 중일관계 70년』(공저), 「일본의 가치지향 외교 네트워크: 인정투쟁, 가치 네트워크, 외교적 위선」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라운드테이블 〈초불확실성 시대의 기술 안보 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발전시킨 내용임을 밝힙니다. 토론과 심사를 통해 연구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귀중한 의견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https://doi.org/10.29154/ILBI.2023.28.268>

지만, 다른 한편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고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일본의 측면에 주목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양상의 적극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한다. 게임체인저란 기존의 상황이나 활동을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새로 도입된 요소(element)나 요인(factor)을 말한다.¹ 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someone)이나 사물(something), 비즈니스의 상황 또는 영역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product) 또는 사건(event) 등을 가리킨다.² 스포츠에서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를, 경영 측면에서는 기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³을 일컬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판도나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자, 수단, 아이디어, 사건 등 핵심적인 요인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정책 차원에 게임체인저 개념을 접목하여 일본의 주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행위자, 인식, 환경, 전략적 수단 등의 게임체인저를 통해 일본의 국가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변화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하기 어려운 외생적 게임체인저였다. 이러한 충격에 대한 반응은 각 국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각 국가의 위협 인식과 국가-사회 관계 등이 반영되며 다양한 국가 전략과 정책들로 나타났다. 국제 정세의 변화라는 외생적 충격에 대해 각 국가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마련해 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 미중 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위기 등을 마주하면

1 Merriam-webster Dictionary,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game%20changer>(최종검색일: 2023. 1. 24.).

2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game-changer>(최종검색일: 2023. 1. 24.).

3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357>(최종검색일: 2023. 1. 24.).

서 그 대응 방안들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생적 게임체인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역시 외생적 게임체인저를 인식하는 가운데 스스로 게임체인저가 될 수단과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역할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전후 일본은 점진적으로, 누적적으로 지역질서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진해 오며 게임을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10여 년 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부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 이르는 일본 국가 전략의 기조와 핵심 내용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 코로나 팬데믹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 일본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등장하고자 어떠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초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전략으로서의 게임체인저 관련 논의를 살펴본다. 주요 개념을 정립하고,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은 일본의 국가 전략의 기조를 변화시켜 온 게임체인저인 아베 신조와 그의 인식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4장은 게임체인저를 육성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 구상들을 살펴본다. 경제안보와 기술안보가 강조되면서 다양한 육성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고안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통해 다층적인 안보전략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장은 결론으로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일본의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함의를 다룬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적이고 누적적이지만 변화를 추구해 온 일본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존 질서와 규칙이 변화하는 가운데 규범과 가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새롭고 강한 일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임체인저 일본의 전략과 구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초불확실성 시대의 게임체인저

최근 국제사회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전까지의 세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전까지의 세계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고, 각종 규범과 규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가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안을 고안하고 적용하고 수정하며 대응해 나갔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역시 전 세계를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공간으로 인식시켰고,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 가고 있다.

최근의 불확실성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들도 있지만,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며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생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와 내부로부터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내생적 변화를 모두 고려할 때, 현재의 세계는 단순한 불확실성 시대만이 아닌 초불확실성 시대(Age of Hyper-Uncertainty)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이러한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각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켄트 칼더(Kent E. Calder)는 일본과 같이 세계 정치경제에 깊이 연계되어 있는 중견국들의 대외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데 “반응 국가”(reactive state) 개념이 유용하다고 보았다.⁵ 외부로부터의 변화나 충격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

4 Seungjoo Lee, "In Search of Regional Stability in the Age of Hyper-Uncertaint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Redesign of Regional Order in East Asia,"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0(2), 2022, pp. 305~310.

5 Kent E. Calder,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도적이기보다는 미국의 정책과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여 일본의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칼더는 일본의 경우 국제 체제의 구조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적 특성에서도 반응적 국가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관료주의적 분열, 정치적 파벌주의, 강력한 대중매체, 강력한 중앙정부의 부채와 같은 국내적 특징들은 1971년 이후 일본의 금융, 에너지, 무역, 기술 정책 형성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0년대 들어선 이후 일본이 주요 투자 국가로 세계 경제 공동체에 참여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2차대전 이후 도입된 제약들로 인해 일본의 반응적 전통을 뛰어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일본의 정책이 전쟁에 대한 혐오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회피(aversion) 이론, 점령이 일본을 반동적인 국가로 만드는 구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제도(institutional) 이론, 일본의 대외 정책 행동을 결정하는 제도화된 규범을 유지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t) 해석, 일본의 외교 정책이 주요 강대국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였다.⁶ 그 밖에도 일본의 대외 경제, 안보 정책에 반응국가론을 접목하거나, 반응국가론의 설명력의 보완을 시도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⁷

한편,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정책 구상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⁸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략에서 미국과 상이한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이 나타난다고 보았다.⁹ 또한 일본이 UN과 같은 국제

World Politics 40(4), 2011, pp. 517~541.

6 Kent E. Calder, "Japan as a Post-reactive State?," *Orbis* 47(4), 2003, pp. 605~616.

7 James Manicom, "Japan's Ocean Policy: Still the Reactive State?," *Pacific Affairs* 83(2), 2010, pp. 307~326; 김기석, 「반응국가 가설과 일본 대외경제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45(3), 2005, 239~262쪽; 사토 노리코·김진기, 「일본의 해양정책: '반응국가'로부터의 탈피?」, 『일본연구논총』 37, 2013, 121~145쪽 등.

8 김기석, 「반응국가로부터 지역패권 국가로?: 패권체제의 변화, 경제위기 그리고 일본 대외경제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22(2), 2006, 119~152쪽; 박철희 엮음,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Andrew L. Oro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llenges to Japan's Post-war Security Identity: 'Norm Constructivism' and Japan's New 'Proactive Pacifism'," *Pacific Review* 28(1), 2015, pp. 139~160; 남기정, 「탈냉전과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등장」, 『INSS 국가행동분석-일본: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등.

9 이승희·김지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일본비평』 27, 2022, 330~356쪽; 오승희, 「일본의 기획 정체성과 중국 인식의 중층성: 가치 외교, 대만 문

사회, 다자외교 무대에서 규범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있음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¹⁰ 특히 2012년 아베 제2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며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한다. 2013년 12월에 채택된 일본의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정책과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일본의 오랜 안보 정체성인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¹¹

이 과정에서 아베 신조의 영향력에 주목한 연구들이 상당하다.¹² 국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능력 재해석, 일련의 안보입법 통과, 일본 자위대 강화, 일본의 국제적 존재감과 세계적 역할 증대, 일본의 전략적 유대 확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개념의 형성 및 확대, 쿼드(Quad)로 대표되는 해양 민주주의 4개국 네트워크 형성, 일본의 국제적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변화의 추동력을 생각하면,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베 총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질서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질서에 대한 정당성 경쟁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 및 경쟁을 함께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가면서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환경에 맞추어 변화를 추진한다. 미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이 수동적 또는 반응적인 측면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한적이거나 일본의 국가이익을 추

제, ‘하나의 중국’, 『日本思想』 43, 2022, 133~156쪽 등.

10 Michal Kolmas, “Japan and the Kyoto Protocol: Reconstructing ‘Proactive’ Identity through Environmental Multilateralism,” *Pacific Review* 30(4), 2017, pp. 462~477.

11 Andrew L. Oro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llenges to Japan’s Postwar Security Identity: ‘Norm Constructivism’ and Japan’s New ‘Proactive Pacifism,’” pp. 139~160.

12 Christopher W. Hughes,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5; Jeffrey W. Hornung, “Abe Shinzō’s Lasting Impact: Proactive Contributions to Japan’s Security and Foreign Policies,” *Asia-Pacific Review* 28(1), 2021, pp. 22~48; Michael J. Green, *Line of Advantage: Japan’s Grand Strategy in the Era of Abe Shinz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2.

구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전략성에 기반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³

앞서 살펴보았듯이, 게임체인저는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제품 등을 이르는 말로¹⁴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이나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활용되고 있다.¹⁵ 변화를 추구하거나 추동하는 현상 변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 아이디어, 사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게임체인저는 판도나 흐름을 바꾸고자 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 접목하여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한 변화는 의도하지 않게 판도를 바꾸거나 변화시킨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¹⁶

게임체인저는 크게 외생적 게임체인저와 일본 내생적 게임체인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흐름과 판도를 변화시키는 사건들과 환경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외생적인 변화를 충격이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한다. 위협 인식과 대응 전략은 구체화된 정책으로 입안되고 구현되며 내재화된다.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일본의 국가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위협인식으로서 국제정세의 변화, 둘째, 경제안보와 기술안보로 대두되는 중층적인 안보 강화, 셋째, 국내법의 개혁과 다양한 제도의 구상을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의 강화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게임체인저로 인식하고, 대응방안

13 김기석, 「반웅국가로부터 지역패권 국가로?: 패권체제의 변화, 경제위기 그리고 일본 대외경제정책」; 이승희·김지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오승희, 「일본의 기획 정체성과 중국 인식의 중층성: 가치 외교,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등.

14 PMG지식엔진 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15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 정부, 2017.

16 김강녕,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한국과 세계』 3(1), 2021; 김강녕, 「새로운 게임 체인저, 레이저 무기개발 동향과 한국의 과제」, 『한국과 세계』 4(5), 2022 등.

으로 게임체인저가 될 만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속 일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지난 10여 년 간의 일본의 국가전략은 ‘새로운 일본 만들기’였으며, 일본의 국가이익을 반영해 나가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점층적이고 누적적으로 게임을 변화시켜 오고 있다.

이상, 본 연구는 변화에 대한 반응적 일본에서 적극적 일본으로의 변화 과정을 게임체인저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게임체인저의 개념과 기존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본의 게임체인저를 환경적 요인으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행위자로 ‘아베 신조’, 정책 아이디어로 ‘기술-경제-가치 안보 넥서스’, 대응 방식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일본의 전략과 구상을 살펴본다.

3. 탈전후로의 게임체인저, 아베 신조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으로부터의 탈각과 새로운 일본으로의 전환¹⁷을 주도한 게임체인저였다. 아베 총리는 2019년 11월 20일 이후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되었고, 총리를 사임한 이후에도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으로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베 내각의 최장수 외상이었던 기시다 총리의 현 내각에서도 주요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해 가고 있으며, 현재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오히려 아베 전 총리가 구상했던 일본의 방위력 강화 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요시다 독트린과 다른 아베 독트린(安倍ドクトリン, Abe Doctrine)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는 ‘탈전후’하는 일본을 만들고자 했고, 요시다 노선에 상

17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美しい国へ 完全版』, 文春新書, 2013.

당한 변경을 가하는 ‘근본적인 변혁’(radical shift)을 이루어 냈다.¹⁸ 아베 독트린은 일본의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의 안보 역할을 강화하고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며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¹⁹ 사임 전 최장기 총리가 되었을 당시 자민당 내에서는 정부 내, 자민당 내, 의회 내에서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방식에 밀실의 결정이라는 불만과 함께 ‘아베 일강(一強) 구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자위대 중동파견 문제, 북방영토문제 교섭방침 변경, 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 주요 외교정책을 소수자가 결정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은 추종자들 중심의 가치 외교를 표방한 변혁적 리더십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번즈는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에 주목하여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²⁰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추종자들과 맺은 거래 관계에 기반하여 단기 성과를 강조하고 보상으로 목표달성을 추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이다. 이에 반해 변혁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추종자들에게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통해 성과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 유형이다. 번즈는 변혁적 리더십이 리더와 추종자가 상호 간 더 높은 도덕적 및 동기적 수준을 갖도록 만드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으로도 불리기도 하며, 전환적 리더십 또는 체제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 리더십 등으로 규정된다.²¹

18 박철희, 「아베 시대의 대전환: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전후하는 일본」, 『일본비평』 25, 2021, 183쪽.

19 Christopher W. Hughes,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Hugo Dobson, "Is Japan Really Back? The 'Abe Doctrine' and Global Governanc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7(2), 2017, pp. 199~224 등.

20 James MacGregor Burns, *Leadership*, New York: Open Road Media, 2012; 최희식,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의 정치리더십 연구: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Embedd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6(5), 2012, 247~266쪽.

21 최희식,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의 정치리더십 연구: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Embedd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성과와 한계」.

아베 독트린의 핵심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like-minded individuals)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아베 내각은 기존의 여당, 관료 내각제 중심에서 내각 중심 정부와 정치 주도로 변화되었다고 평가된다. 관료기구 내에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관저관료화되었다. 아베와 내각관방장관, 부장관, 총리비서관, 총리보좌관,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매우 제한된 사람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그리고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전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의 3자 구도가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방위성과 외무성 등에서도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같이하는(like-minded) 인사들로 구성되어 아베 내각의 기본가치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동류집단을 형성했다. 이는 대외 정책에서도 마음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로 나타나는데, 가치를 중심으로 동류그룹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대응 방식을 마련한 것 역시 아베 독트린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07년 8월 22일, 아베 총리가 인도 국회에서 ‘2개의 바다의 합류’(二つの海の交わり)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비베카난다(Vivekananda)와 라다비노드 팔(Radhabinod Pal) 판사를 비롯한 일본과 인도와의 인연을 언급하고, 인도의 관용의 정신, 인구대국 인도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일본과 인도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일본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결합’임을 강조한다. 또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구상과 연계되어 있음도 밝힌다.

일본 외교의 신기축으로 불리는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은 2006년 11월 30일 당시 아소 외상이 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가치 외교로 밝힌 것이다. 미·일 동맹의 강화와 유엔의 장을 비롯한 국제 공조,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등 기존의 일본 외교의 기동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시장 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인도와 호주와의 관계 강화를 거듭 밝히고 있다.²²

2007년 연설에는 이미 일본과 인도가 ‘확대 아시아’(拡大アジア)를 형성

하고 미국과 호주를 끌어들여 태평양 전역에 이르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나타나 있다. 아베 총리와 인도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는 “강한 인도는 일본의 이익이며 강한 일본은 인도의 이익이다.”라는 점을 확인한다.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 역시 50년 전 인도를 방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ODA를 제공한 인연이 있었음도 강조한다.

2012년 아베 총리는 가치 외교를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지구의의를 부담하는 외교’(地球儀を俯瞰する外交)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을 내세웠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개의 대륙, 태평양과 인도양의 두 개의 바다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이 아베 독트린의 기본원칙으로 정립되었다. 아베 독트린은 2013년 1월 18일 아베 총리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자카르타에서 발표하고자 마련했던 일본의 대 아세안 외교의 새로운 5원칙에 반영되어 있다.

1.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 표현, 언론 자유의 완전한 실현
2. 해양에서의 법과 규칙의 지배 실현
3. 자유롭고 열린 상호 연계된 경제관계의 추구
4. 한층 더 충실한 문화적 연결
5. 미래를 담당하는 세대 교류의 촉진

2013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과 일대일로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아베 내각의 확대된 아시아 지역구상은 더욱 강화된다. 중국의 영토적 야심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으로 향해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여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인도, 베트

22 오승희, 「일본의 가치지향 외교 네트워크: 인정투쟁, 가치 네트워크, 외교적 위선」, 『일본연구』 91, 2022, 47~76쪽.

남, 필리핀, 호주 등 인도태평양 주변 국가들과 안전보장을 포함한 관계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보았다.

2015년판 외교청서에서는 가치와 관련하여 한일관계 서술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웃국가임은 남아 있지만, 가치와 관련된 서술은 삭제되었다. 2016년판 외교청서에서는 ‘지구의 부담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가 자리 잡고 일본 외교의 세 기둥으로서 ① 미·일 동맹의 강화, ② 이웃과의 관계 강화, ③ 일본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외교의 추진이 제시되었다.

2018년에는 지구의 부담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로 외교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 외교의 6가지 분야가 언급된다. ① 미·일 동맹의 강화 및 동맹국·우호국의 네트워크화 추진, ② 이웃과의 관계 강화, ③ 경제 외교의 추진, ④ 지구 규모 과제에 대한 대응, ⑤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⑥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이 제시되면서 전 세계를 조망하며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FOIP 구상이 구체화되고 확산되기 시작한다.

2019년 한일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평가될 만큼 판도가 급변하였는데, 아베 총리의 수출규제는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것 같은 이웃 국가 한국에게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y)인지를 묻는 과정이었고, 이에 한국은 한·일 양자관계 속에서 지소미아 종료라는 안보 협력 파기검토로 일시 대응하였으나, 결국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동류그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했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한일관계는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의 맥락에서 한일관계를 인식함으로써 과거로부터 멀어지고, 아베 독트린의 비전인 강한 일본,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경제적 번영을 함께해 나가는 데 동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한일관계의 구조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³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의 부활을 선언하고, 일본의 안보 강화를 위한 적

23 2019년 한일관계의 구조적 전환점에서 한국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주목한 연구로는 윤석정, 「문재인 정부의 대일 투-트랙(Two-Track) 외교와 한일 관계: 한일 관계의 게임 체인저로서 강제동원판결」, 『일본학보』 132, 2022, 45~62쪽 참조.

극적인 활동을 상징하여, 기존의 경제발전을 우선시하고 경무장과 비군사화를 중시하였던 요시다 노선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 냈다. 전후 터부시되고 제약되었던 역사문제에 대한 도전과 수정이 나타났고, 경제강국 일본의 부활을 위한 타개책으로 아베노믹스를 제시하였다.

아베 내각은 국내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교정책에서도 가치관을 공유하는 개인과 그룹을 중심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해 나갔으며, 그 중심에는 변혁적 리더십에 기반한 아베 독트린이 정립되었다. 아베 독트린은 정치, 경제, 역사, 안보, 가치관 등 모든 측면에서 강한 일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무장을 추구했던 요시다 독트린과 구별된다.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요시다 독트린과 달리 평화헌법의 제약을 극복하고 미일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일본 스스로의 안보 강화를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본 정책노선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의 판을 마련하였다.

4. 게임체인저 인식과 일본의 대응 전략

1) 기시다 내각의 주요 대응 전략

2023년 1월 1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연두소감(年頭所感)에는 일본이 인식하는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²⁴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나타난 일본의 위기인식, 전환점 인식, 대응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내외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에너지 위기, 고물가, 아베 총리 사망 등을 주요 사건으로 언급한다. 2022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본 경제의 강력한 회생을

24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 令和5年 年頭所感」,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3/0101nentou.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표 1〉 게임체인저 인식과 전략

게임체인저	환경적 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
국제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존도 약화) 글로벌 연대 네트워크 국제적 지위 강화
일본 국내	전후 세대 증가 경제 성장 둔화 아베 독트린과 아베의 사망	전략적 불가결성 강화(역량 강화) 기술-경제-가치 안보 넥서스 전후 레짐의 탈각, 헌법개정

출처: 필자 작성.

이뤄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석을 쌓아 왔으며, 2023년에는 “방위력 강화, 새로운 자본주의,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 등 지난해 준비한 다양한 포석을 실제로 가동시키고 움직여 나가겠다.”라고 선언한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아베 총격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과 같은 변화의 분기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큰 전환기에 일본이 스스로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일본을 창조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갈” 결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후 일본이 직면해 쌓아 온 수많은 어려운 문제, 미룰 수 없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있다. 이는 기시다 정권이 강조하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 ‘새로운 자본주의’와 환경 정책의 강화로 나타난다. 또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위기에 대해서는 2023년 G7 히로시마 서밋 개최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과 같이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서의 자각과 영향력 강화의 의도가 드러난다.

지난 한 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본 경제의 강력한 회생을 이뤄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석을 두었습니다. 방위력 강화, 새로운 자본주의,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 등 지난해 준비한 다양한 포석을 실제로 가동시키고 움직여 나간다. 그것이 올해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일본은 몇 번이나 국난이라고도 불려야 할 큰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

만, 그때마다 국민이 일치 단결해 스스로의 나라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어려움도 모두가 힘을 합쳐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마음이 풍부한 일본을 미래에 계승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안보와 기술안보의 강화는 주로 외부로부터의 게임체인저 충격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안으로 적극 추진되어 왔다.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국제적 지위를 강화해 나간다. 동시에 일본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며 전략적 불가결성을 도모하고, 기술안보와 경제안보가 연계되어 국가 성장동력을 강화해 가며 가치 차원에서도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전후 레짐의 탈각, 헌법개정, 국방력 강화 등 아베 내각에서부터 도모해 온 변화를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과학기술과 혁신 정책

(1) CSTI와 Society 5.0: 인간 중심의 안전, 안심 사회

일본 과학기술 정책은 일본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초불확실성 시대 속 한 국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구 규모의 과제나 신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과제 등 정책 입안에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세계가 직면하는 중요 과제 등에 정부와 일본 학계가 제휴하여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 향상을 도모한다.²⁵

일본은 내각부 산하에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²⁶를 설치

25 内閣府, 「日本学術会議の在り方についての方針」, https://www8.cao.go.jp/cstp/gaiyo/yusikisha/20221222_2/siryo1.pdf(최종검색일: 2023. 1. 24.).

26 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CSTI,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하였다. CSTI는 총리가 의장으로 지휘하는 일본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조사심의, 과학기술 예산, 인재의 자원배분 등에 대한 조사심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로 이노베이션의 창출 촉진 등을 도모하는 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에 대한 조사심의 등을 실시한다.²⁷ 국가적·사회적 과제에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 전략을 입안하는 전략성과 적시성, 인문·사회과학도 포함하여 윤리 문제 등의 사회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종합성, 총리 등의 자문에 응해 답신하고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는 자발성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²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과 연구개발과 Society 5.0의 가교 프로그램인 BRIDGE²⁹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SIP은 기초연구에서 사회 실장(実装, 실현/구현)까지 내다보는 연구개발을 단번에 추진하여 부처연계에 의한 분야 횡단적인 연구개발 등에 산관학 제휴로 임하는 프로그램이다. BRIDGE는 CSTI의 사령탑 기능을 살려 SIP나 각 부처의 연구개발 등 시책에서 창출된 혁신기술 등의 성과를 사회과제 해결이나 신사업 창출, 나아가 일본이 목표로 하는 장래상(Society 5.0)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영역에서 각 부처 시책을 실시 및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SIP와 BRIDGE 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거버닝보드(governing board)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디렉터(PD)를 두어 프로그램 총괄팀을 운영한다.³⁰

27 内閣府, 「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の概要」, <https://www8.cao.go.jp/cstp/gaiyo/index.html> (최종검색일: 2023. 1. 24.).

28 内閣府,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造推進費に関する基本方針(改正案)」, 2019, <https://www8.cao.go.jp/cstp/siryo/haihui042/siryo1-2.pdf> (최종검색일: 2023. 1. 24.).

29 이전의 국민연구개발투자확대프로그램(官民研究開発投資拡大プログラム, PRISM: Public/Private R&D Investment Strategic Expansion PrograM)이 BRIDGE로 재편되고 있다.

30 内閣府,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造推進費に関する基本方針(改正案)」.

조직 및 운영을 살펴보면, PD는 거버넌스보드의 승인을 거쳐 과제별로 총리가 임명하고, 담당 과제 및 계획을 정리하여 중심이 되어 진행하며, SIP와 BRIDGE 과제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BRIDGE 관련 분야의 각 부처 시책에 대해 제안하고 조언 및 지원을 실시한다. 과제별로 PD, 내각부, 관계부처, 연구추진법인(SIP의 예산집행상 전략 및 계획에 근거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추진위원회를 내각부에 두고 해당 과제의 전략 및 계획의 책정 및 개정이나 실시 등에 필요한 조정 등을 실시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PD가 맡고 사무국은 내각부(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사무국)가 맡는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PD가 BRIDGE 관련 분야의 각 부처 시책에 대해 제안, 조언 및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³¹

Society 5.0은 일본 정부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일본이 열망해야 할 미래사회로 처음 제시했다. 수렵사회(Society 1.0), 농업사회(Society 2.0), 산업사회(Society 3.0), 정보사회(Society 4.0)에 이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고도로 통합하는 시스템에 의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균형을 이루는 인간 중심 사회”를 지향한다.³²

정보사회(Society 4.0)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고, 분야를 넘어서는 협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하는 작업이 부담되었고, 연령이나 장애 등에 의한 노동력과 행동범위의 제약이 존재했다. 또한, 소자고령화, 지방과소화 등의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Society 5.0의 사회 혁신은 기존의 정체감을 타파하는 전향적 사회, 세대를 초월해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동적이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³³

31 内閣府,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造推進費に関する基本方針(改正案)」.

32 内閣府, 「Society 5.0」, https://www8.cao.go.jp/cstp/society5_0/(최종검색일: 2023. 1. 24.).

33 内閣府, 「Society 5.0」.

Society 5.0은 사이버 공간(가상 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실 공간)을 고도로 융합한 시스템을 통해 실현된다. 과거 정보사회(Society 4.0)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정보나 데이터를 검색,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Society 5.0에서는 물리적 공간의 센서에서 나오는 방대한 정보가 사이버 공간에 축적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에 의해 분석되며, 분석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에게 피드백된다. 이 과정은 새로운 가치가 산업이나 사회에 전달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양립시키고자 한다.³⁴

세계의 큰 변화에 직면하여, 한 사회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oT, 로봇공학, AI, 빅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신기술을 모든 산업과 사회활동에 접목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병행하는 새로운 사회로 Society 5.0을 현실화해 나가 고자 한다.³⁵

(2)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지식-기술-사회 연결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이노베이션력의 강화, 연구력 강화, 교육 및 인재육성의 3가지를 축으로 하는 5년간 약 30조 엔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국민의 연구개발투자의 총액은 약 120조 엔을 목표로 한다.³⁶

대학개혁이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교육이 개척하는 ‘지적 자산’과 경제 안전 보장 등에 대응하는 첨단 연구개발이 낳는 ‘기술 시즈’를 게임 체인지의 양 날개로 하여 스타트업을 주 축으로 사회 변혁을 실현해 나간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은 지식, 기

34 内閣府, 「Society 5.0」.

35 内閣府, 「Society 5.0」.

36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https://www8.cao.go.jp/cstp/tougosenryaku/togo2022_honbun.pdf(최종검색일: 2023. 1. 24.).

술, 사회를 연결하는 3개의 기둥을 묶어 연계하면서 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다.³⁷

과학기술 정책의 첫 번째 축은 <지식기반(연구력)과 인재육성 강화>다. 우선, 대학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기초연구 및 학술연구를 진흥하고 전국에 다면적·다층적 지식기반을 구축한다.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창조적인 연구를 선도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적 요구를 파악해 평생 교육을 촉진하여 대학 등이 창출하는 지적 자산을 사회에 환류한다. 대학펀드가 이끄는 다른 차원의 연구기반 강화와 대학개혁을 추진한다. 약 10조 엔(약 9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경쟁력 등이 기대되는 대학을 지원하는 ‘국제탁월연구대학’(国際卓越研究大学) 공모, 박사과정 학생의 처우 향상과 경력 경로 확대, 신진연구자의 연구환경 개선, 여성연구자의 활약 촉진, 국제공동연구·국제두뇌순환 추진, 연구 데이터의 전국적인 관리·활용,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와 연구 인프라의 정비·공용화를 확보한다. 둘째, 지역 중핵, 특색 있는 연구대학의 진흥을 위해 종합진흥패키지의 개정, 강점이나 특색을 늘리는 전략적 경영의 뒷받침이 이루어진다. 셋째, 탐구·STEAM교육과 리커런트 교육 추진으로 재능 있는 자녀 지원, 이공계 젠더 격차 해소, 기업·대학 등에서의 재학습 지원 내실화 및 환경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과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한 축이다.³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두 번째 축은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형성>이다. 이노베이션의 담당자로서 스타트업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사회를 활성화하고 딥테크와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이 속속 생겨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한 후 정책 도구를 총동원해 민간 자금을 유발하고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철저한 지원과 민간 자금을 포함하는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 기관투자가로부터의 벤처캐피탈(VC)

37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38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투자촉진·환경정비 등 성장자금을 강화하고 민간 VC 육성 및 국내외 VC와 협조한 사업화 지원 강화, 미상장 시장 창설이나 기업가 정신(앙트레프레너십) 교육을 통한 기업가 지원, 국제적인 스타트업·캠퍼스 구상 추진 등 도시·대학 등의 기능 강화,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 강화와 정부조달 활용, 자금순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그리고 기시다 내각에서 중시해 온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을 가속화한다. 스마트시티를 통한 지역 모범사례의 창출 및 전개, 로드맵 책정, 각 분야 거점 형성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과제 해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이 가져오는 혜택의 국민, 사회, 지역으로의 환원을 내용으로 한다.³⁹

세 번째 축은 〈첨단 과학 기술의 전략적 추진〉이다. AI·양자의 신전략 책정이나 싱크탱크의 진화로 승산을 파악하고,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이나 차기 SIP 등의 추진으로 대응을 가속한다. 디지털이나 그린, 반도체 등 중요 과제에 국민이 대응해, 일본이 세계를 리드해야 할 분야에서 반전(反転) 공세를 본격화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요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과제에 대응한다. AI, 바이오, 양자, 머티리얼,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량·농림수산업 등 국가전략에서의 사회실장 강화를 포함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데이터 전략에 기초한 사회의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의 방재 등에 대한 활용, 탄소 중립 실현 및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실시한다. 둘째, 안전·안심 사회 만들기를 위해 싱크탱크 기능 강화 및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셋째,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회실장 추진과 종합지식을 활용한다. 종합지 발신, SIP 제2기 실장과 차기 준비, 문샷(Moonshot) 프로그램 추진과 국제표준전략의 강화, 과학기술외교·국제공동연구의 추진, 연구인테그리티의 확보, 경제구조의 자율성, 기술의 우위성·불가결성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승산이 있는 기술을 육성한다.⁴⁰

39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40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분야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과제에 대해 타 분야 융합과 다양한 시책의 상보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세스를 다듬는다. 신규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야별 전략 간 연계를 도모하는데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이나 차기 SIP를 경제안전보장이나 사회실장 시점을 강화하고, 부감적(俯瞰的)으로 AI·양자 등 분야별 전략끼리 연결하는 수단으로 기능시켜 전략 간 연동성을 향상시키고, 승산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주요 시책이나 분야별 전략 간 유기적인 연계를 고도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분야별 전략의 후속 조치를 확립하여 승산 있는 게임을 보다 확실히 하고 국가적 중요 과제를 달성한다.⁴¹

이상과 같이 지식과 인재육성,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첨단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강하고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본의 대응 전략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확보되는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⁴²

(3) K Program과 문샷: 자율성, 우위성, 불가결성

일본은 경제안보와 기술안보의 연계를 통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율성(自律性), 우위성(優位性), 불가결성(不可欠性)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안보 측면에서 특정중요기술(特定重要技術)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측면에서 자유무역의 대원칙에 기반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전환하는 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⁴³ 경제안보 관련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며 전략 기술로 육성

41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42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43 최해욱, 「경제안보를 위한 일본의 전략기술 확보전략 및 시사점」, 『STEPI Insight』 307, 2022.

및 강화해 가는 것이 일본의 대응방식이다. 정부가 안전보장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략물자나 기술을 특정하고, 이를 강력한 권한과 예산 배분으로 지원하는 ‘재정출동’이 이루어진다.⁴⁴

일본은 2020년 4월 내각 관방 산하의 국가안전보장국(NSS) 내에 경제 반을 신설하여 총리관저 주도의 경제중시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다. 2020년 6월 자민당 정무조사회에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를 구성하고 2020년 12월 「경제안전보장전략의 책정을 향해」(『経済安全保障戦略策定』に向けて)라는 제언을 발표하였다.⁴⁵ 2021년 기술우위 확보, 기간인프라, 공급망 위협 저감 및 자율성 확보,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자금 거출 등 경제안전보장 긴급과제를 설정하였다. 2021년 10월 경제안보 담당상으로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를 임명하였다. 경제안보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공급망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고, 첨단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특허 비공개 등을 제시하였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 추진회의(経済安全保障推進会議)를 설치하고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⁴⁶을 가결하였다.⁴⁷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핵심기술품목 20개를 특정 중요기술로 지정하였다. 특정중요기술이란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 유지에 중요한 선도적 기술로,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정부가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물자 혹은 서비스를 외부에 의존하여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가 필요한 첨단기술이다. 20개 핵심기술로는, 바이오 기술, 의료·공중위

44 최해욱, 「경제안보를 위한 일본의 전략기술 확보전략 및 시사점」.

45 自由民主党, 「提言『『経済安全保障戦略策定』に向けて』」, 2020, <https://www.jimin.jp/news/policy/201021.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46 공식 명칭은 <경제 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의한 안전 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로, 약칭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표기한다.

47 최해욱, 「경제안보를 위한 일본의 전략기술 확보전략 및 시사점」; 이정환, 「일본 경제안보정책 정책 대립축의 이중구조: 외교안보적 수렴과 성장전략 방법론 논쟁의 잠복」, 『일본연구논총』 55, 2022, 91~119쪽.

생기술(개념학 포함), 인공지능(AI)·기계 학습기술(머신러닝), 첨단 컴퓨팅 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반도체 기술, 데이터과학·분석·축적·운용기술, 첨단엔지니어링·제조기술, 로봇공학, 양자정보기술, 첨단감시·측위·센서 기술, 뇌컴퓨팅·인터페이스 기술, 첨단 에너지·에너지 절약 기술, 고도정보 통신·네트워크 기술, 사이버 시큐리티 기술, 우주관련 기술, 해양관련 기술, 수송기술, 극초음속, 화학·생물·방사성물질 및 핵, 첨단재료과학을 선정하였다. 해양, 우주·항공, 사이버 공간, 바이오 4개 기술 분야를 축으로 연구개발 비전과 연구개발 분야를 제시하였다.⁴⁸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安全保障技術研究推進制度)를 통해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을 정부기금으로 지원한다.⁴⁹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經濟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 Key and Advanced Technology R&D through Cross Community Collaboration Program)은 짧게 줄여서 K Program으로 부른다.⁵⁰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확고한 지위를 계속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첨단적인 중요기술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다의성을 근거로 민생 이용뿐만 아니라 공적 이용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활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안전 보장상 일본의 요구를 근거로 하면서, 개별 기술의 특성이나 기술 성숙도 등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 유출 대책을 취하면서, 연구개발로부터 기술 실장까지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한다.⁵¹

안전보장과 경제를 횡단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과제가 표면화되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이 국가 간 패권 다툼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의 강화나 기술 유출의 방지 등에 의해 기술·산업 경쟁력의

48 内閣府, 「經濟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 https://www8.cao.go.jp/cstp/anzen_anshin/program/3kai/siryo2-2.pdf(최종검색일: 2023. 1. 24.).

49 최해옥, 「경제안보를 위한 일본의 전략기술 확보전략 및 시사점」.

50 内閣府, 「經濟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 2022, https://www8.cao.go.jp/cstp/anzen_anshin/kprogram.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51 内閣府, 「經濟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 2022, https://www8.cao.go.jp/cstp/anzen_anshin/program/3kai/siryo2-2.pdf(최종검색일: 2023. 1. 24.).

항상이나 일본의 독자적인 우위성, 나아가 불가결성의 확보를 향한 대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한다.

과학기술력과 이노베이션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연마해 타국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하고, 그 우위성을 한층 더 연마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필요 불가결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늘려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제 안전 보장의 확보·강화의 관점에서 일본이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할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장래의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유지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첨단적인 기술 중 해당 기술이 외부에 부당하게 이용되었을 경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 중요기술 중에서 특별히 우선해야 하는 것을 육성·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 하는 중요기술의 판별은 첫째, 기술에 있어서의 우위성·불가결성의 확보·유지 및 자율성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둘째,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에만 맡겨서는 투자가 불충분해지기 쉬운 첨단 기술, 셋째, 민생 이용뿐만 아니라 공적 이용과 관련된 요구를 연구개발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제1차 연구개발 비전에서는 첨단중요기술로 AI기술, 양자기술, 로봇공학, 첨단센서-기술, 첨단에너지 기술과 장소로서의 영역으로 해양 영역, 우주·항공 영역, 영역 횡단·사이버 공간 영역, 바이오 영역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부감한다.⁵²

우선 해양 영역에서는, 자원이용 등 해양권의 확보, 해양국가 일본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해양안전보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 기술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기동적인 해양 관측·조사·모니터링 능력의 확대를 위해 자율형 무인탐사기

52 内閣府,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第一次)(概要)」, 2022, https://www8.cao.go.jp/cstp/anzen_anshin/1_vision_gaiyou.pdf(최종검색일: 2023. 1. 24.).

(AUV)의 무인·자원 절약에 의한 운반·투입·회수 기술, AUV 기체 성능 향상 기술(소형화, 경량화), 양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바닷속(비GPS 환경)에서의 고정밀 항법 기술을 지원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해양 관측·조사·모니터링 능력 확대를 위해 선진 센싱 기술을 이용한 해수면에서 해저에 이르는 공간 관측 기술, 관측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석하여 통합 처리하는 기술, 양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바닷속에서의 혁신적 센싱기술이 지원 대상이다. 일반 선박의 미활용 정보 활용으로 현행 자동 선박 식별 시스템(AIS)을 고도화한 차세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기술이 지원된다.⁵³

두 번째 우주·항공 영역에서는 우주 이용 우위를 확보하는 자립적 우주 이용 대국의 실현, 안전하고 편리성이 높은 항공 수송·항공기 이용의 발전을 목표로 위성통신·센싱 능력 발본 강화를 위해 저궤도 위성 간 광통신 기술, 자동·자율 운용 가능한 위성 컨스텔레이션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고성능 소형 위성 기술, 고감도 소형 다파장 적외선 센서 기술이 대상이다. 민생·공적 이용 무인항공기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거리 등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형 무인기 기술, 소형 무인기를 포함하는 운항 안전 관리 기술, 소형 무인기와의 신뢰성 높은 정보 통신 기술이 선정되었다. 우위로 이어질 수 있는 무인항공기 기술 개척으로는 소형 무인기의 자율 제어 및 분산 제어 기술, 공역의 안전성을 높이는 소형 무인기 등의 검지 기술, 소형 무인기의 비행 경로 풍황 관측 기술이 지원대상이다. 항공 분야에서의 첨단 우위기술 유지 및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항공기 개발 제조 공정 고도화 기술, 항공기 엔진용 선진 재료 기술(복합재 제조 기술), 초음속 요소 기술(저소음 기체 설계 기술), 극초음속 요소 기술(폭넓은 작동 영역을 가진 엔진 설계 기술)이 지원대상이다.⁵⁴

세 번째 영역횡단, 사이버, 바이오 영역에서는 영역에 걸친 사이버 공간

53 内閣府,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第一次)(概要)」.

54 内閣府,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第一次)(概要)」.

과 현실 공간의 융합 시스템에 의한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기반, 감염병이나 테러 등 유사시 위기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고출력을 요하는 모빌리티 등에 탑재 가능한 차세대 축전지 기술, 우주선 묶음을 이용한 혁신적 측위·구조물 이미징 등 응용기술, AI 보안에 관한 지식·기술 체계·부정기능 검증 기술(펌웨어·소프트웨어/하드웨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용 기반 기술 생체분자 시퀀스 등 첨단 연구분석기기·기술이 지원대상이다.⁵⁵

또한 일본의 우위성·불가결성 확보로 이어지는 양자, AI기술, 로봇공학, 첨단센서기술, 첨단 에너지기술 등 신흥기술·최첨단기술을 획득해 가며 지원 대상으로 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각각의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것 외에 요소기술의 조합에 의한 시스템화, 다양한 센싱 등에 의해 얻어진 빅데이터 처리, 설계 제조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의 대응을 포함할 수 있다.⁵⁶

일본은 정부지원과 관계부처 간 연계, 그리고 싱크탱크와의 연계를 구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 지침을 작성하고, 지침에 근거하여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자금 지원을 하는 동시에 조사연구를 싱크탱크에 위탁하여 첨단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 지침을 작성한다. 자금 지원, 관민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등을 실시한다. 또한 연구 개발자는 기본 지침에 근거하여 개별 프로젝트마다 연구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연구개발 대신, 정부 관계 행정기관장, 연구 대표자/종사자, 싱크탱크 등으로 구성)를 구성하고, 구성원에게 비밀보장 의무를 부여한다.⁵⁷

이 밖에도 일본은 정부주도의 임무중심형(Mission-oriented)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게임체인저 육성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55 内閣府,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第一次)(概要)」.

56 内閣府,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第一次)(概要)」.

57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우선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은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분야의 테두리를 넘어 스스로 예산을 배분하고 기초 연구에서 출구(실용화·사업화)까지 겨냥하여 규제·제도 개혁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다. 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프로그램(ImPACT)⁵⁸은 2013~2018년도에 마련되어 산업과 사회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목표로 실패위험이 크지만 영향력도 크게 발휘할 수 있는(high risk, high impact) 도전적인 연구개발로 추진되었다. PRISM은 2018년 민간연구 개발투자의 효과가 높은 영역이나 연구 성과 활용에 기대되는 영역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로 BRIDGE 프로그램으로 재편되고 있다. 2019년 시행된 일본판 DARPA인 문샷형 연구개발제도는 사회적 과제를 주요 테마로 설정하고, 장래 사업화를 시야에 둔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지원 중이다.⁵⁹

이 중에서 문샷 프로그램은 인류를 달에 보낸 미국의 아폴로 계획과 같이 대담한 발상에 근거한 연구개발을 뜻한다. ‘사람들의 행복’(Human Well-being)의 실현을 목표로 미래의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되는 이하의 3개의 영역으로부터, 구체적인 9개의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급진적 이노베이션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개척하여 저출산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 등의 과제에 대처한다. 환경과 관련해서 지구환경을 회복시키면서 도시 문명을 발전시켜 지구온난화, 해양 플라스틱, 자원 고갈, 환경보전과 식량생산 양립 등에 대처한다. 경제적으로는 과학과 기술로 프론티어를 개척하여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계산 수요 증대, 인류의 활동 영역 확대 등을 도모한다.⁶⁰

58 革新的研究開発推進プログラム(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59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2」.

60 内閣府, 「ムーンショット目標」, 2022, <https://www8.cao.go.jp/cstp/moonshot/target.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 목표 1. 2050년까지 사람이 신체, 뇌, 공간,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실현
- 목표 2. 2050년까지 초조기(超早期)에 질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목표 3. 2050년까지 AI와 로봇의 공진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며 사람과 상생하는 로봇 실현
- 목표 4. 2050년까지 지구환경 재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현
- 목표 5. 2050년까지 미이용 생물기능 등의 완전한 활용을 통해 지구규모로 무리·낭비가 없는 지속적인 식량공급산업을 창출
- 목표 6. 2050년까지 경제·산업·안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오류 내성형 범용 양자컴퓨터 실현
- 목표 7. 2040년까지 주요 질환을 예방·극복하고 100세까지 건강 불안 없이 삶을 즐기기 위한 지속적인 의료·돌봄 시스템 실현
- 목표 8. 2050년까지 극심해지고 있는 태풍과 호우를 제어하여 극단적인(심각한) 풍수해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목표 9. 2050년까지 마음의 편안함과 활력을 증대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회를 실현

주목할 것은 최근 인간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가치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은 초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회 만들기 구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3) 다층적 네트워크 강화와 안보 넥서스

게임체인저 육성을 위한 일본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동류 국가로 인식되는 협력 가능한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선도주자인 대만의 TSMC와 일본의 소

니(SONY)가 공동으로 구마모토현(熊本県) 기쿠요마치(菊陽町)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4년 12월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일본 덴소(DENSO)도 TSMC와 소니가 설립한 합작회사에 출자했다. TSMC는 이 공장에서 12인치 웨이퍼 월 4만 5,000장을 생산할 예정이며 소니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탑재되는 자사 이미지 센서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사용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에 4,760억 엔(약 4조 5,7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한때 세계적 수준에 올랐으나 현재는 뒤쳐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TSMC 공장과 연구개발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24일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쓰쿠바시(筑波市)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사업비 370억 엔(약 3,5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90억 엔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센터에서는 고도의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등 여러 기능을 조합한 첨단기술 실용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산 공장과 연구센터, 대학과의 연계 등 인재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글로벌 네트워크 연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부에서도 기업 간, 민-관,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일본의 주요 기업인 덴소, 키옥시아(Kioxia), 미쓰비시UFJ은행(MUFG Bank), NEC, NTT, 소프트뱅크(SoftBank), 소니, 도요타(Toyota) 8개사가 출자하여 라피더스(Rapidus)를 설립했다. 2027년까지 슈퍼컴퓨터,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로직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5조 엔(약 48조 원)의 설비투자 등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이미 700억 엔(약 6,8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⁶¹ 또한 미·일이 연계하는 연

61 산업연구원, 「미·일의 파운드리 진출로 반도체 분업구조의 변화가 전망」, 『미래전략산업브리프』 제 28호, 2022, 17쪽.

구 거점으로 ‘기술연구조합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LSTC)를 설립하여 Rapi-
dus와 함께 도쿄대학 및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도쿄공업대학,
도호쿠대학, NIMS(물질, 재료 연구기구)가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
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⁶²

또한 정부 내부적으로도 첨단 중요기술 지원을 위해 내각부 주도로 신
규 프로그램 기획, 기술 분야 선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문부과학성, 경제
산업성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지원하면서 경제안보·과학기술
관련 싱크탱크와 협의체 강화를 통한 전문성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다.

정부 주도로 특정 기술을 선정하고 육성해 나가며 관련 부처들과 협력
하면서 유식자와 싱크탱크를 연계한 협의회를 거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굴하는 방식은 이전에도 자주 추진되어 왔던 방식이다.⁶³ 일본은 효과적인
기술 정책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 기술의 수입과 국
내 개발의 균형을 맞추고,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주요 세력으로 기업/민간
부문을 참여시켰다. 정부와 기존 정책 도구의 역할을 인식하고, 국가의 특
정 사회 경제 현실에 맞는 현지화된 옵션을 채택하고, 외국 기술 수입과 토
착화를 활용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장 메커니즘
개발 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다.⁶⁴

여기에 최근 일본은 불확실한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위를 가진
전략적인 기술을 경제 발전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고, 첨단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군사
안보 영역을 비롯한 탈전후의 시도들이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62 KOTRA 해외시장뉴스, 「일본, 차세대 반도체 신회사 설립」, 202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8226(최종검색일: 2023. 1. 24.).

63 오승희,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 모델: 외부성의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INSS 국가행동분석-일본: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64 Peilei Fan and Chihiro Watanabe,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Technology Policy: Lessons from Japan and China,” *Technology in Society* 28(3), 2006, pp. 303~320.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자유와 번영’, ‘자유와 개방’에 이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가치와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가치를 중시하면서 경제와 기술, 그리고 국가 안보가 연계되는 기술, 경제, 가치 안보 넥서스가 일본의 게임체인저 대응 및 육성 전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5. 결론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질서는 변화하였다. 각국은 생존 전략을 마련해 나가며 자국 중심의 게임 만들기에 주력하면서 불안정한 세계가 지속되고 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기후변화와 첨단 과학기술 경쟁이 나타나면서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국가안보는 경제와 기술 그리고 가치가 연계된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국민이 제휴·협력하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 통해 국가적 중요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과제 해결, ‘안전·안심 확보’의 관점에서 국가의 생명선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경제, 기술, 가치를 결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며 인간중심의 사회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변화에 다소 수동적이고 외압에 반응적인 측면이 존재했지만, 아베 내각부터는 전 세계를 부감하며 새로운 일본 만들기를 모색해 왔다. 자유와 번영의 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과 같은 네트워크 연대 전략은 가치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헌법 개정 논의 등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과 새로운 일본으로의 자율성 확보는 보다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국제 규범과 룰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아베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까지 안보 측면에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요시다 독트린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아베 독트린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핵심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며 산업 정책과 연계하는 정치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첨단기술은 최근의 초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게임체인저로 언급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그리고 사회의 필요에 맞춘 실현까지, 기술과 지식 그리고 사회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모색되고 있으며, 다양한 행위자와 부처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일관되면서도 효율적인 네트워크 연계 방안들이 고안되고 있다.

경제안보와 기술안보가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뜻을 같이하는 개인이나 집단, 국가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평가르기와 분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중 경쟁 속 유사한 입장에 놓인 중견국들 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동류 국가들 간의 연대가 강조되고 있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구상해 온 지정학에 기반한 국제 네트워크 연대는 ‘자유와 번영’에서 ‘자유와 개방’에 이어 최근 ‘안전과 안심’으로 보다 인간 지향적인 생명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트윈과 탄소 중립 등 환경에 대한 가치가 보다 중시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가치부여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국민의 안전 안심에서 글로벌 차원의 안전 안심이 가능하도록 일국가적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서 인간과 생명 지향적 가치 안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동류그룹 만들기에서 나타나는 분열과 배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게임체인저였던 아베는 이제 없지만, 아베가 남긴 아베 독트린과 새로운 일본 만들기는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방위비의 GDP 1% 제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16일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으며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일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2023년 G7 히로시마 서밋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과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여 사회과제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과학기술입국 실현, 스타트업 철저 지원,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추진, 경제안전보장의 확보, 사람에 대한 투자의 근본 강화를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 인간 중심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Society 5.0의 실현과 종합적 지식에 기반한 사회변혁과 ‘지(知)·사람에 대한 투자의 선순환’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초 불확실성 시대, 일본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인가? 유엔 안보리 개혁과 국제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일본의 게임체인저 구상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山崎雅弘, 『「天皇機関説」事件』, 集英社, 2017.

美濃部達吉, 「上杉博士の「国体に関する異説」を読む」, 星島二郎 編, 『上杉博士対美濃部博士最近憲法論』, 実業之日本社, 1913.

瀧井一博, 「象徴として天皇: 明治憲法下での議論」, 鈴木貞美, 劉建輝 編, 『東アジアにおける知的交流: キー・コンセプトの再検討』,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13.

前川理子, 『近代日本の宗教論と國家: 宗教學の思想と國民教育の交錯』, 東京大学出版会, 2015.

嘉戸一将, 「身体としての国家: 明治憲法体制と国家有機体説」, 『相愛大学人文科学研究年報』 4, 2010.

速藤泰弘, 『オットー・フォン・ギーケの政治思想: 第二帝政期ドイツ政治思想史研究序説』, 国際書院, 2007.

下畠知志, 「寛克彦と南原繁: 「日本的民主主義」の位相」, 『日本史学集録』 42, 2021.

Ankersmit, F. R., *Political Representa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Pitkin, Hanna Fenichel,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초불확실성 시대 일본의 게임체인저 전략: 아베 독트린, 안보 넥서스, 가치 네트워크 | 오승희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357> (최종검색일: 2023. 1. 24.),

김강녕,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한국과 세계』 3(1), 2021.

김강녕, 「새로운 게임 체인저, 레이저 무기개발 동향과 한국의 과제」, 『한국과 세계』 4(5), 2022.

김기석, 「반응국가 가설과 일본 대외경제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45(3), 2005.

김기석, 「반응국가로부터 지역패권 국가로?: 패권체제의 변화, 경제위기 그리고 일본 대외경제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22(2), 2006.

김상배,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국제정치경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진화」, 『국제·지역연구』 30(1), 2021.

김상배, 「미중 플랫폼 경쟁으로 본 기술 패권의 미래」, 『Future Horizon』 36, 2018.

김상배,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 과주: 한올아카데미, 2022.

남기정, 「탈냉전과 '적극적 행위자' 일본의 등장」, 『INSS 국가행동분석-일본: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박현, 『기술의 충돌: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7가지 게임체인저』, 과주: 서해문집, 2022.

박철희 엮음,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박철희, 「아베 시대의 대전환: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전후하는 일본」, 『일본비평』 25호, 2021.

사토 노리코·김진기, 「일본의 해양정책: '반응국가'로부터의 탈피?」, 『일본연구논총』 37, 2013.

산업연구원, 「미·일의 파운드리 진출로 반도체 분업구조의 변화가 전망」, 『미래전략산업브리프』 제 28호, 2022.

오승희, 「일본의 가치지향 외교 네트워크: 인정투쟁, 가치 네트워크, 외교적 위선」, 『일본연구』 91, 2022.

오승희, 「일본의 기획 정체성과 중국 인식의 중층성: 가치 외교,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日本思

想』43, 2022.

오승희, 「일본형 외교안보 싱크탱크 모델: 외무성의 '외교 싱크탱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INSS 국가행동분석-일본: '행동하는 국가' 일본의 전략구상과 실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윤석정, 「문재인 정부의 대일 투-트랙(Two-Track) 외교와 한일 관계: 한일 관계의 게임 체인저로서 강제동원판결」, 『일본학보』 132, 2022.

이승희·김지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일본비평』 27, 2022.

이정환, 「일본 경제안보정책 정책대립축의 이중구조: 외교안보적 수렴과 성장전략 방법론 논쟁의 잡목」, 『일본연구논총』 55, 2022.

최혜옥, 「경제안보를 위한 일본의 전략기술 확보전략 및 시사점」, 『STEPI Insight』 307, 2022.

최희식,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의 정치리더십 연구: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Embedd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6권 5호, 20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美しい国へ 完全版』, 東京: 文春新書, 2013.

内閣府, 「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の概要」, 2022, <https://www8.cao.go.jp/cstp/gaiyo/index.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内閣府, 「日本学術会議の在り方についての方針」, 2022, https://www8.cao.go.jp/cstp/gaiyo/yusikisha/20221222_2/siryo1.pdf(최종검색일: 2023. 1. 24.).

内閣府, 「ムーンショット目標」, 2022, <https://www8.cao.go.jp/cstp/moonshot/target.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内閣府,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 2022, https://www8.cao.go.jp/cstp/anzen_anshin/kprogram.html(최종검색일: 2023. 1. 26.).

内閣府,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 2022, https://www8.cao.go.jp/cstp/anzen_anshin/program/3kai/siryo2-2.pdf(최종검색일: 2023. 1. 24.).

内閣府,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研究開発ビジョン(第一次)(概要)」, 2022, https://www8.cao.go.jp/cstp/anzen_anshin/1_vision_gaiyou.pdf(최종검색일: 2023. 1. 24.).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2022」, 2022, <https://www8.cao.go.jp/cstp/tougosenryaku/2022.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内閣府,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造推進費に関する基本方針(改正案)」, 2019, <https://www8.cao.go.jp/cstp/siryo/haihui042/siryo1-2.pdf>(최종검색일: 2023. 1. 24.).

内閣府, 「Society 5.0」, https://www8.cao.go.jp/cstp/society5_0/(최종검색일: 2023. 1. 24.).

首相官邸, 「岸田内閣総理大臣令和5年年頭所感」, 2023,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3/0101nentou.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自由民主党, 「提言『『経済安全保障戦略策定』に向けて』」, 2020, <https://www.jimin.jp/news/policy/201021.html>(최종검색일: 2023. 1. 24.).

KOTRA 해외시장뉴스, 「일본, 차세대 반도체 신회사 설립」, 202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

- 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8226(최종검색일: 2023. 1. 24.).
- PMG지식엔진 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
- Akimoto, Daisuke, *The Abe Doctrine: Japan's Proactive Pacifism and Security Strategy* Singapore: Springer, 2018.
- Burns, James MacGregor, *Leadership*, New York: Open Road Media, 2012.
- Calder, Kent E., "Japan as a Post-reactive State?," *Orbis* 47(4), 2003.
- Calder, Kent E.,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40(4), 1988.
-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game-changer>(최종검색일: 2023. 1. 24.).
- Dobson, Hugo, 2017, "Is Japan Really Back? The 'Abe Doctrine' and Global Governanc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7(2).
- Envall, H. D. P., "The 'Abe Doctrine': Japan's New Regional Re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0(1), 2020.
- Fan, Peilei and Watanabe, Chihiro,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Technology Policy: Lessons from Japan and China," *Technology in Society* 28(3), 2006.
- Green, Michael J., *Line of Advantage: Japan's Grand Strategy in the Era of Abe Shinz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2.
- Hall, Peter A.,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5(3), 1993.
- Hornung, Jeffrey W., "Abe Shinzo's Lasting Impact: Proactive Contributions to Japan's Security and Foreign Policies," *Asia-Pacific Review* 28(1), 2021.
- Hughes, Christopher W.,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5.
- Kolmas, Michal, "Japan and the Kyoto Protocol: Reconstructing 'Proactive' Identity through Environmental Multilateralism," *Pacific Review* 30(4), 2017.
- Lee, Seungjoo, "In Search of Regional Stability in the Age of Hyper-Uncertaint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Redesign of Regional Order in East Asia,"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0(2), 2022.
- Manicom, James, "Japan's Ocean Policy: Still the Reactive State?" *Pacific Affairs* 83(2), 2010.
- Manurung, Hendra, "Japan-U.S. Relations under the Abe Doctrine: Shifting Policy in East Asia Regional Stab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3, 2017.
- Merriam-webster Dictionary.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game%20changer>(최종검색일: 2023. 1. 24.).
- Oros, Andrew L.,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llenges to Japan's Postwar Security Identity: 'Norm Constructivism' and Japan's New 'Proactive Pacifism'," *Pacific Review* 28(1), 2015.
- Uesugi, Yuji, Kazushige Kobayashi, and Tomoaki Honda, "Japan's Peacebuilding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Change and Continuity, 2012~2020," *East Asian Policy* 13(1), 2021.

와 결합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생명주의와 신에 대한 이해와의 결합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가케이는 스피노자-슬라이어마허-딜타이의 논의 속에서 절대자를 대생명으로서 치환하여 만물을 이 대생명의 표현으로서 바라봄으로써 천황을 둘러싼 국체논쟁에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신도’, ‘생명’, ‘표현’이라는 그의 핵심개념이 갖는 의미와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본고는 근대 일본에서의 천황제를 둘러싼 정치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히 밝히고자 했다.

주제어: 가케이 가쓰히코, 신도, 국체, 천황기관설, 생기론, 범신론

초불확실성 시대 일본의 게임체인저 전략: 아베 독트린, 안보 넥서스, 가치 네트워크 | 오승희

본 연구는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을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한다. 위협인식, 대외적 환경변화, 전략적 수단, 행위자로서의 게임체인저 등 분야별 다양한 게임체인저들을 통해 일본의 국가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변화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초불확실성 시대,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일본’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후 일본이라는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게임체인저 아베 신조와 아베 독트린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기시다 내각의 주요 정책과 전략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중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살펴보고, 경제, 기술, 사회가 가치와 연계하여 나타나는 다층적인 국가안보 전략이 형성되는 가운데, 일본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 어떠한 전략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외교전략, 게임체인저, 기술안보, 경제안보, 가치외교

ink, Harunobu's work using various colors must have been a suitable means of displaying the splendid and glamorous wedding ceremonies pursued by wealthy Edo people. By analyzing visual elements like the latest kimono patterns in wedding attire represented in the marriage scenes of *Konrei nishiki misao-guruma*,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how successfully Harunobu conveyed the consumer culture of contemporary marriage ceremoni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Harunobu's work also played a role in promoting wedding goods, encouraging Edo people to spend more on wedding preparation.

• **Keywords:** Suzuki Harunobu, Nishikawa Sukenobu, wedding manual, female educational book, wedding image in the Edo period, kimono pattern, *echigoya*, *ukiyo-e*, *nishiki-e*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Modern Japan: The Intellectual Meaning of Kakei Katsuhiko's Theory of Shintoism | KIM Taejin

This paper examines the intellectual and historical meaning of Kakei Katsuhiko's Shintoism. For him, God was not an absolute transcendent, but something that all humans could reach. He thought a man devoted to the state could reach God. Kakei's intent here is sufficiently clear. He was, in effect, defending the logic that the people should forget themselves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country. It is undeniable that Kakei's Shintoism is related to the ultra-nationalism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What has to be questioned here, however, is how Kakei theorizes this logic through religion. His logic seems to be fundamentally at odds with doctrine of Christianity, but it is not far from pantheistic vitalism seen by German romanticists at that time. Kakei tried to apply Friedrich Schleiermacher or Wilhelm Dilthey's ideas about religion to Shintoism. In so doing, great life was replaced with God, and everything was viewed as an expression of it. The Japanese emperor was also an expression of great life, that is Japan's *kokutai*. By disclosing the logic of Kakei's Shintoisms,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thereby providing us with a more nuanced and holistic account of Shintoism.

• **Keywords:** Kakei Katsuhiko, *kokutai*, Shintoism, emperor, vitalism, pantheism

Japan's Game-Changing Strategy in the Era of Hyper-Uncertainty: Abe Doctrine, Security Nexus, Value Network | OH Seunghee

This study analyzes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by combining the concept of a game changer with a situation involving unstable international order. I discuss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nsidering aspects such as threat recognition, external environment change, strategic means, and the game changer as an actor. As the situations at home and abroad have changed rapidly in the era of hyper-uncertainty, Japan's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proactive policies, recognizing that it should create a new and strong Japan.

This paper explains game-changer Abe Shinzo and the Abe Doctrine that intended to

change the existing order of post-war Japan, then identifies the core contents of Japan's national strategy. This paper will help promote an understanding of Japan's strategy to respond to unpredictable chang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U.S.–China competition, an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cluding an analysis of Japan's strategy to emerge as a new game changer in international society.

• **Keywords:** security strategy, game changer, technology security, economic security, value diplomacy